

특별기획 시리즈
제 168 회

금성치과의원 원장
-김 규 문-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의학

이 그림은 그리스시대(기원전 520년경) 작품으로서 파나이토스의 화가 그림으로 되어 있다.

에트루리아의 키우지 출토로 되어 있으며 세탁을 준비하는 소녀의 자태가 약간은 에로틱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얼마나 청결을 중요시 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토아학과 철학자(기원전 4세기, 3세기)는 건강보다도 미덕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풀이했지만 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악이라고도 생각했다.

실제로 그들의 규범 밑에서는 병을 위한 자살까지도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병이 불치의 경우 이외는 병자의 입장은 이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치료자는 병자에게 주의를 쏟고 체내나 체외의 자연요인의 희생자로 간주되어 당연히 합리적인 조치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